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19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

『산상설교』 상권 제19장, 인쇄 252~26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20

> ❓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실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주님이 사역 초기에 율법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했던 이유를 짚는다. 주님은 율법을 느슨하게 하러 오지 않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러 왔다. 그래서 성결은 체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정의한다. 이어서 당시 가장 거룩해 보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종교를 다섯 측면에서 해부한다. 외적이고 형식적이었고, 도덕보다 의식을 앞세웠고,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 율법을 피했고, 자기 의에 갇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 상관없다”는 반대 극단도 물리친다. 결론은 중생한 사람만이 새 성품으로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를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는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가,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난다.

📜 절별 정리

📜 1. 주님은 왜 처음부터 율법에 대한 태도를 밝히셨나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5:17~20이 주님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앞 장들에 이어 다시 강조한다.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할 이유는 많았다. 그분은

강조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원칙을 세운다. 첫째, 그분의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와 모순되지 않는다. 둘째,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 로이드 존스는 계명 사이에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둘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계명 하나를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므로, 우리는 율법의 모든 부분을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

1. 주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오해받기 쉬웠다
2. 원칙 1: 율법·선지자와 모순되지 않는다
3. 원칙 2: 서기관·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르다
4. 계명에는 경중의 구분이 있다
5. 그래도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릴 수 없다

> **마태복음 5:19**
>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앞 절
>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 **마태복음 11:19**
> 주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불렸다는 오해의 배경
>
>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 **야고보서 2:10**
>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
>
>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 **마가복음 12:28~31**

>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 2. 성결은 체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성결을 다시 정의한다. 성결(또는 성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이다. 그는 성결이 어느 순간 '받는' 체험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체험이 율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성결 자체를 체험으로 받을 수는 없다. 성결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율법을 높이고 지키신 것처럼 사는 것, 곧 주님을 닮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높임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20에서 “너희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말이다.

1.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낮추러 오지 않았다
2. 성결은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이다
3. 성결은 율법을 지키신 주님을 닮는 것이다
4. 5:20은 당시 청중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 **마태복음 5:17**
>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본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결은 우리가 하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성취하는 것”

📜 3.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였나 — 가장 거룩해 보이던 사람들

서기관은 평생을 율법 연구와 해석, 정성스러운 필사에 바친 율법 전문가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의 이름 그대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세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었다. 로이드 존스는 금식을 예로 든다. 구약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요구했는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평민들은 “나는 저들처럼 거룩해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가장 작은 그리스도인의 의라도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뜻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무서운 이유를 짚는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위선자인 줄 모르는 '무의식적 위선자'였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믿었다. 참된 예배 대신 예배에 딸린 것들을 의지할 위험은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크다.

1. 서기관은 율법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2. 바리새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다
3. 구약은 연 1회 금식, 그들은 주 2회 금식했다
4. 백성은 그들을 덕행의 모범으로 우러렀다
5. 그들은 자기 위선을 몰랐다 —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누가복음 18:12

바리새인의 “일주일에 두 번 금식” 자랑

레위기 16:29

구약이 요구한 연 1회 속죄일의 금식(스스로 괴롭게 함)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마태복음 23:23

박하·회향·근채까지 십일조를 바친 그들의 정확함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4. 바리새 종교 진단 ① 마음 없는 외적 종교, ② 도덕보다 의식

첫째 비난은 그들의 종교가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 손 씻는 문제에서도 주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다. 바리새인은 겉은 그럴듯하고 속은 썩은 '회칠한 무덤'이었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면서 속에는 시기와 복수심이 가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서 그는 주님의 날카로운 말들이 '사법적 정죄'라고 설명한다. 거짓 의의 가면을 벗기는 일은 거룩한 사랑의 일부이므로, 주님의 사랑과 진노 사이에 모순은 없다. 그는 “신앙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누군가의 정의를 인용한다. 우리가 남에게 숨기는 내면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최종적으로 말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비난은 그들이 도덕보다 의식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로이드 존스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상관없다는 종교가 점점 성행한다고 개탄한다. 그는 주의 날은 가능한 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날이라고 말한다.

1. 바리새 종교는 겉만 있고 마음이 없었다

3. 주님의 책망은 거룩한 사랑의 일부다
4. 혼자 있을 때의 내가 진짜 나다
5. 주일 오전만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잘못이다

누가복음 16:15

사람 앞의 의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대조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11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19

악한 생각·살인·간음이 마음에서 나온다

>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23:27

회칠한 무덤 — 겉과 속이 다른 종교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신앙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그것이다."

📜 5. 바리새 종교 진단 ③ 규칙으로 율법을 피하기, ④ 자기 의와 자기만족

셋째, 그들은 서로 허용해 주기로 한 예외 규정과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오히려 율법을 깨뜨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 봉양을 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겉으로는 율법을 특별한 방식으로 지켰다고 하지만, 실은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개신교인이 비판하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결의론자들'을 예로 든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을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전문가였다. 그는 이혼을 믿지 않는 가톨릭 교인이 이혼하는 사례도 언급한다. 그러나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도 죄를 합리화하고 구실을 늘어놓는 데 능하다고 말한다.
넷째, 바리새인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성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기도한 바리새인에게는 예배가 전혀 없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복음주의자들도 “저 현대주의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며 자기만족에 빠지기 쉽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지 않는 데 있다.

1. 전통과 예외 규정으로 율법을 회피했다
2. 부모 봉양을 '드림'으로 빠져나갔다
3. 우리도 죄를 합리화하는 데 능하다
4.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높임이었다
5. 남과 비교한 자기만족은 예배가 아니다

> **마가복음 7:10~13**
> '고르반' 전통으로 부모 공경 계명을 피한 예
>
> 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누가복음 18: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 예배 없는 기도

>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 6. 결정적 결함 — 팔복의 영과 사랑이 없었다

바리새인이 끝내 정죄받은 까닭은 팔복이 그리는 영이 그들의 삶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팔복은 마태복음 5:3~12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성품을 그린 여덟 가지 복이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아는 것),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정해진 의무를 했다고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한다. 주님은 그들이 박하 십일조까지 바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목숨·뜻·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종교의 중심이다. 로이드 존스는 거룩이 어떤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와 이웃 사랑이다. 바리새인은 '사람됨(being)'보다 '행동(doing)'에 관심을 두었다. 산상설교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이것을 풀어 준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만족해도 음욕으로 보면 이미 간음이라는 말씀이 그 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주일 일부만 쓰는 '시간제 일'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집중을 요구한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가 늘 이것을 보여 준다고 덧붙인다.

1. 팔복의 성품이 그리스도인과 바리새인을 가른다
2. 십일조는 꼼꼼했지만 사랑을 버렸다
3. 거룩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다
4. 행동(doing)보다 사람됨(being)이 먼저다

마태복음 5:3~9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팔복의 성품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마태복음 23:23

정의·긍휼·믿음이라는 더 중요한 것을 버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2:30~31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종교의 중심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5:27~28

행위가 아니라 마음 상태를 보시는 예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7.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가? — 중생한 사람의 새로운 의

로이드 존스는 청중의 품을 질문을 직접 꺼내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잘 살아야

입을 막아 온 세상을 정죄한다. 그런데 반대 극단도 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받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20절 첫머리의 작은 낱말 'for'(왜냐하면)가 이 해석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이 낱말이 20절을 “행하고 가르치라”는 19절에 묶기 때문이다. 성경은 믿음만도 행위만도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가르친다. 은혜의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지 말라”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삶이 의롭지 않다면 회심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만이 아니라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생,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중생한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된다. 그에게 계명은 가혹한 짐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리새인을 훨씬 능가하는 의다.

1.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2. “상관없다”는 반대 극단도 오류다
3. 20절의 'for'가 19절의 '행함'과 연결된다
4. 표지는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다
5. 중생한 사람은 계명을 기뻐한다

> **로마서 3:10**
>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 행위 구원 불가
>
>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로마서 3:19**
>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둔다
>
>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 **로마서 3:23**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린도전서 6:9~10

은혜의 사도가 교인에게 한 “속지 말라” 경고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21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린도후서 5:17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 새 성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후서 1:4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5:3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기독교인의 표지는 행위로써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해석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당시의 율법 전문가다.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라는 뜻으로, 모세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며 남과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이다.

성결·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 점점 거룩해지는 일상의 과정이다.

외식(무의식적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른 채 잘하고 있다고 믿었다.

사법적 정죄
재판관이 판결하듯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한 자를 공적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개인적 분노와 다르다.

결의론자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양심과 행동 문제를 교묘한 논리로 합리화하던 교사들이다.

예외 규정(dispensations)
바리새인들이 서로 허용해 준 율법 면제 규칙이다. 번역본에는 '세대'로 옮겨져 있지만 세대주의와는 무관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죄 용서와 함께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는 일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주님은 율법을 느슨하게 하러 오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러 오셨다.
- 바리새인의 의는 외적이고 의식 중심이며, 자기 높임과 합리화에 갇혀 사랑이 없는 의였다.
-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 곧 행동보다 먼저 오는 사람됨이다.
- 구원은 행위로 얻지 않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드러난다.
- 중생한 사람은 새 성품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그것이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